

# 봄 나들이철 아웃도어 용품 '대박'

## 할인행사에 고객들 몰려

### 롯데 1시간 매출 8천만원 진기록

### 신세계 지난해보다 2배이상 매출

지역 백화점들이 봄나들이철을 맞아 마련한 등산장비 등 아웃도어용품 할인 판매행사가 첫 날부터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8일 오전 11시부터 개최한 '코오롱스포츠·아웃도어 대전'에서 불과 1시간만에 8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같은 매출규모는 롯데백화점 광주점 개점(1998년) 이래 1시간 동안 올린 최고 기록이다.

또 등산용품을 사기 위해 모여든 500여명의 고객들이 아침부터 백화점 주변에서 장사진을 치다가 문을 열자마자 한꺼번에 건물 안으로 몰려들면서 큰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행사 첫날 행사장인 8층 이벤트홀을 다녀간 고객만 2만여명이 넘자 백화점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전년보다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있으며 목표 매출액도 2배 이상 높게 잡고 있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이 1층 이벤트 홀에서 진행중인 '아웃도어 대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다. 백화점 오픈(오전 11시) 전인 오전 10시부터 300여명의 고객이 몰려 줄을 서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이날 오후 3시까지 행사장에서 아웃도어 용품을



8일 오전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 열린 '아웃도어 대전'에 수백명의 고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구매를 한 고객은 모두 1천700여명. 평일 아웃도어 매장 하루 평균 구매 고객이 220여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7배가 넘는 수가 상품을 구입한 것이다.

광주신세계백화점 측은 이번 행사 첫 날 매출이 지난해 행사 때보다 2배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화점들이 매년 두차례씩 열고 있는 '아웃도어 대전'은 노스페이스, 컬럼비아, 리파우 등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대거 참여하는 데다 바람막이

재킷, 티셔츠, 등산화 등 각종 등산 용품을 30~50%까지 할인판매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따라 백화점들은 물량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해보다 이월상품을 34%가량 더 확보했으며 광주신세계백화점도 전년보다 물량을 20% 늘렸다.

이들 백화점들이 마련한 아웃도어 대전은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버핏, 포스코서 1조 5400억 벌었다

## 금융위기때 추가 매입... '가치 투자' 진가 발휘



'가치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이 금융위기로 주가가 급락했을 때 포스코의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큰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말 현재 포스코 주식 394만7천554주(지분율 5.2%)를 보유하고 있다.

해서웨이는 이에 따라 지난해 말 현재 포스코 지분 투자로 1조5천400억원(당시 환율 적용)의 평가차익을 거

뒀으며 투자수익률도 172.4%나 됐다.

포스코가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보고서에 등장한 것은 2006년도다. 당시 해서웨이는 포스코의 주식을 346만6천6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평균 매입 단가가 15만원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2002년 또는 2003년부터 매입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2007년 보고서에선 포스코 보유 주식수는 변함이 없다가 2008년 보고서에서 현 수준으로 46만1천548주가 증가한다.

2008년은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

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경제 위기로 건설, 자동차 등 전방산업이 부진함에 따라 철강수요가 급감하고 가격도 급락했던 시기다. 60만원에 육박했던 포스코의 주가는 그해 6월을 기점으로 급전직하로 폭락해 10월 말에 24만원까지 떨어졌다.

시장가치(주가)가 내재가치보다 저평가된 종목을 골라, 내재가치가 제값을 찾은 뒤 이익을 실현한다는 '가치투자' 기법에 맞춰 포스코의 주가가 급락했을 때 포스코의 비중을 확대한 것이다. /연합뉴스

## 光銀 13일 새벽 2시~자정 고객서비스 일시 중단

### 전산센터 이전... 입출금·365코너 등

광주은행이 전산센터 이전으로 오는 13일(토요일) 새벽 2시부터 밤 12시까지 자동화 코너 등 고객 서비스 업무를 일시 중단한다. 중단되는 업무는 365원리코너

자동화 기기를 통한 현금 입출금, 잔액조회, 송금,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통장정리 업무 등이다.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잔액조회, 송금, 신용카드 서비스 이체를 비롯

한 각종 조회 서비스도 중단되며 체크카드도 사용할 수 없다. 단,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은 가능하다. 문의는 콜센터(1588-3388, 1600-4000),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를 이용하면 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

## 새얼굴

# “지역 우량 中소 상장 적극 돕겠다”

## 강 보 선 예탁결제원 광주지원장

“광주, 전남·북 증권시장과 금융투자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일 취임한 강보선(49) 한국예탁결제원 광주지원장은 “지역 우량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증권

시장에 많이 상장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객 서비스와 지역 사회공헌활동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은 광주, 전남·북지역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종합관리하는 기관이다. 신임 강지원장은 충남 부여 출신으로, 한양대 경제학과와 연세대 경제대학원을 거쳐 1988년 예탁결제원에 입사해 파생서비스팀장 등을 지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화이트데이, 유통업계 마케팅 열전

유통업계가 설날과 겹쳐 놓친 밸런타인데이 특수를 화이트데이(14일)로 만회하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에 돌입했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010 화이트데이 선물 상품 제안전'을 열고 의류, 액세서리, 핸드백 등 다양한 선물을 준비했다.

또 12~14일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는 '화이트데이 로맨틱 프리포즈' 상품전을 마련해 와인, 케이크, 사탕 등을 판매한다.

이밖에 화장품 매장에서는 14일까지 '코스메틱 페스티벌'을 열고 기획상품을 비롯해 사은품 증정,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내걸고 고객맞이에 나섰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14일 오후 2시 1층 광장에서 '초콜릿 분수 풍류 시식' 이벤트를 마련한다. 초콜릿 복장을 한 마임 배우의 공연도 13~14일 1층 광장에서 진행된다.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14일까지 '화이트 데이 스페셜 모바일 이벤트'를 진행한다.

휴대전화로 #09001번을 누른 뒤 '나에게 화이트 데이는 000이다'에 대한 답 문자를 보내는 행사로 추첨을 통해 여행상품, 백화점 상품권, 영화초대권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송원점 (061) 752-9940  
 옥포점 (061) 282-9200  
 총정점 (062) 227-9970  
 덕산점 (063) 851-2422

무안 ↔ 장사직항

광주MBC 문화탐방

광주MBC 문화탐방 전세기 사무실 062-226-6070